

이대 정원 35% 정시서... 수도권 가천대 지방 전북대 '최다'

수능 이후 정시 많이 뽑는 대학은
서울권, 건국대·국민대 順 뒤이어
한성대 상상력인재학부 330명 선발
인문계열, 이대>중앙대>서울고대 順
정시이월 인원 많은 대학 주목할 만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 수능 위주 정시모집 경쟁이 본격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인원이 많은 대학·학과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린다. 비슷한 수능 성적을 받았거나, 유사한 계열을 지망할 경우 보다 많은 인원을 뽑는 대학이나 학과 지원이 유리한 때문이다.

14일 종로학원하늘교육과 각 대학에 따르면, 2019학년도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전체 31만42명(정원내 기준·신학관련 종교대학 제외) 중 25.3%에 해당하는 7만 8436명이다. 정시 선발 비율은 서울권(31.2%, 2만938명)이 가장 높고, 수도권(29.4%, 1만3874명), 지방권(22.3%, 4만 3624명) 순이다.

◆정시선발 이화여대·건국대·국민대 순
서울권 소재 대학 중 정시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이화여대로 1266명

〈서울 소재 정시모집 많은 대학 상위 10개교〉

구분	대학명	인원	비율
1	이화여대	1,266	35.1%
2	건국대	1,171	38.9%
3	국민대	1,162	40.5%
4	연세대	1,011	20.5%
5	송실대	949	35.4%
6	홍익대	940	39.0%
7	세종대	898	38.5%
8	한양대	852	30.3%
9	동국대	823	30.5%
10	서울과학기술대	793	38.2%

／자료=종로학원하늘교육·각 대학

(35.1%)을 선발한다. 이어 건국대(1171명, 38.9%), 국민대(1162명, 40.5%), 연세대(1011명, 29.5%) 순으로 1000명이 넘고, 송실대(949명, 35.4%), 홍익대(940명, 39.0%), 세종대(898명, 38.5%), 한양대(852명, 30.3%), 동국대(823명, 30.5%), 서울과학기술대(793명, 38.2%)가 정시 선발 인원이 많은 대학으로 꼽힌다.

수도권 소재 대학 중에서는 가천대 글로벌캠퍼스가 1023명(31.7%)을 뽑아 정시 선발 인원이 가장 많다. 이어 인천대(823명, 33.0%), 수원대(815명, 37.0%), 단

국대(744명, 32.6%), 경기대수원캠퍼스(725명, 27.9%), 경희대 국제캠퍼스(700명, 29.2%),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671명, 38.9%), 인하대(661명, 19.4%), 대진대(633명, 35.1%), 한양대 에리카캠퍼스(606명, 33.1%)가 상위 10위권에 든다.

지방 소재 대학 중에서는 전북대(1455명, 38.0%), 경북대(1432명, 36.4%), 영남대(1340명, 29.4%), 부산대(1322명, 34.7%) 등 지방 거점 국립대와 대규모 대학들이 1000명이 훌쩍 넘는 신입생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이밖에 충남대, 강원대 춘천캠퍼스, 계명대, 조

선대, 부경대 등도 1000명 이상을 수능위주 정시모집으로 뽑는다.

◆한성대 상상력인재학부 정시로만 330명 '최다'

서울 소재 대학 단일 모집단위 가운데 정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한성대 상상력인재학부(인문·자연 공통)로 241명(주간)과 89명(야간) 등 총 330명을 정시모집으로만 선발한다. 이어 인문계를 기준으로 이화여대 인문계열(201명), 중앙대 경영경제대학(148명), 서울고대 초등교육학과(135명), 홍익대 경영학부(101명),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95명),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95명), 연세대 경영학과(88명) 선발 인원이 많다.

자연계열만 보면 이화여대 자연계열(181명)이 가장 많고, 이어 성균관대 공학계열(135명), 홍익대 서울캠퍼스 자율전공(자연예능·119명),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91명),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85명),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정보컴퓨터공학과(각 79명), 중앙대 공과대학(74명) 순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인문계) 중에서는 경인교대 초등교육과(179명), 단국대죽전캠퍼스 경영학부(70명), 경기대수원캠퍼스 경영학과(59명), 가천대 글로벌캠퍼스

경영학부 경영학전공·글로벌경영학전공(각 52명), 가천대 글로벌캠퍼스 자유전공(49명) 순으로 많고, 자연계열에서는 가천대메디컬캠퍼스 간호학과(75명), 중앙대안성캠퍼스 생명공학대학(67명), 한국외대글로벌캠퍼스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65명),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64명), 가톨릭대 생활과학부(62명) 순으로 정시모집 인원이 많다.

◆정시 선발인원 증가한 대학 전략 지원

한편, 수시모집 인원을 다 뽑지 못해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는 대학도 의외로 많다. 이들 대학은 당초 예고된 인원보다 많이 선발해 정시모집 전략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서울 지역 대학의 수시모집 이월로 인한 정시모집 증가 인원은 3996명이나 됐다. 증가 인원으로 보면, 연세대가 당초 정시모집에서 1016명을 뽑기로 했지만, 수시모집에서 297명이 이월돼 정시모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성신여대(254명), 한성대(193명), 고려대(190명), 성균관대(185명), 서울과학기술대(179명), 송실대(176명), 서울대(175명), 서경대(151명), 광운대(153명), 동덕여대(133명), 건국대(132명) 순으로 많았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졸업후 구직까지... 취업 공백기 '10개월'

사람인, 직장인·구직자 1045명 설문
“취업공백기, 채용평가시 감점요소”

졸업후 구직까지 취업 공백기가 평균 10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취업 공백기가 채용평가시 감점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사람인이 직장인과 구직자 1045명을 대상으로 ‘취업 공백기와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583명) 중 74.4%는 ‘취업 공백기’를 가진 후 취직했고, 이들의 평균 취업 공백기는 10개월이었다.

취업 공백기 중 이들이 한 활동(복수응답)으로는 ‘지속적으로 구직활동’(55.3%)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아르바이트’(39.2%), ‘자격증 공부’(38.0%), ‘공인 어학시험 준비’(20%), ‘여행’(15.2%), ‘인턴’(9.2%), ‘국가고시 준비’(7.1%) 등의 순이었다.

취업 공백기가 채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는 61.3%가 ‘감점요소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고, 면접 전형에서 취업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은 69.1%로 10명 중 7명 꼴이었다.

／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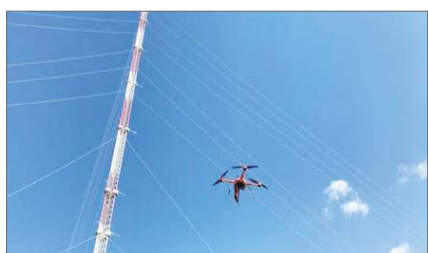
대학가 소식

세종대 드론으로 미세먼지 데이터 수집 시연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호)는 자율무인이동체연구사업단(단장 홍성경)이 지난 달 30일 드론으로 미세먼지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 서비스를 시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드론 시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의 일환으로 전남 보성군에 위치한 보성 글로벌표준 기상 관측소에서 진행됐다.

상시 측정이 가능한 고정형 유선 플랫폼(드론) 및 최대 고도 1km까지 고도 상승이 가능한 이동형 릴레이 플랫폼(드



세종대 자율무인이동체연구사업단이 지난 달 30일 전남 보성군에 위치한 글로벌표준 기상 관측소에서 드론으로 미세먼지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세종대학교

론)을 활용해 미세먼지 데이터를 관측·수집한다.

경희사이버대 ‘기후변화시대’ 주제 초청 특강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후마니타스학부가 오는 19일 오후 7시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105호에서 ‘기후변화의 시대 앞으로 50년,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한다’ 주제 초청 특강을 진행한다

1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후마니타스학부장 서우경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홍육희 세민환경연구소 소장의 특강과 참여 학생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취준생 77% “면접 때 들러리 선 적 있다”

잡코리아, 취준생 1127명 설문
68% “이후 구직과정서 슬럼프”

올해 기업 면접을 치른 취준생 10명 중 7~8명은 면접에서 들러리라고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면접 들러리라고 느낀 이후 구직과정에서 의욕저하 등 부정적인 감정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잡코리아가 올해 면접을 치른 적이 있는 취준생 1127명을 대상으로 ‘면접 중 자신이 들러리라고 느껴진 적이 있는 지’ 묻은 결과, 응답자의 76.5%가 ‘있다’고 답했다.

면접 들러리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남성(80.9%)이 여성(75.0%)보다 다소 많았고, 기업 유형별로는 외국계기업(80.7%), 대기업(79.9%), 공기업(75.8%), 중소기업(75.1%) 지방 취준생 순으로 많았다.

자신을 면접 들러리처럼 느낀 이유(복수응답)로는 ‘특정 지원자에게만 질문이 쏟아져서’(45.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나에게 질문하거나 응답을 듣는



올해 면접 치른 취준생 1127명 설문. /자료=잡코리아

태도가 건성처럼 느껴져서’(37.1%), ‘내정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26.5%), ‘질문을 거의 받지 못해서’(25.4%),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관이 계속 호의적이라는 인상을 받아서’(24.8%) 등이었다.

들러리라고 느꼈던 면접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는 질문에 51.0%의 취준생이 ‘아무렇지 않은 듯 준비한대로 답답히 임했다’고 답했고, 15.9%의 취준생들은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임했다’고 답했다. 반

면 ‘포기하고 편안히 임했다(25.9%)’, ‘어차피 떨어질테니 대충 임했다(7.2%)’고 답한 취준생들도 있었다.

면접 들러리라는 느낌은 대체로 당락으로 이어졌다. 들러리라고 느꼈던 취준생의 83.9%가 ‘해당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답했지만, 그렇지 않은 취준생 탈락 비율은 38.9%로 낮았다. 다만 면접에서 들러리라고 느꼈지만 ‘포기하고 대충 임했다’고 밝힌 취준생 그룹 탈락율은 91.9%인 반면, ‘오히려 필사적으로 임했다’는 취준생 그룹 탈락율은 69.3%로 상대적으로 낮아, 똑같이 들러리라고 느꼈어도 면접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 당락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면접 들러리 경험이 있는 취준생 그룹에서 ‘구직, 취업의욕이 떨어졌다(37.2%)’, ‘자격지심 등 슬럼프를 겪었다(21.7%)’, ‘짜증, 스트레스가 늘어 예민해졌다(8.9%)’ 등 부정적인 감정이 67.8%로 높았던 반면, ‘면접 들러리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는 취준생 그룹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50.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미래엔 남북한 공통 ‘통일 국어 교과서’ 배포

초등 저학년용·교사용 학습안내서 등

교육출판전문기업 (주)미래엔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 개발을 완료하고, 3만5000부를 무상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배포처는 교육부와 통일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전국 초등학교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이다.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는 순수 민간 차

원에서 개발된 국내 첫 남북한 어린이 대상 국어과 교과서다. 미래엔은 “국내 최초의 교과서 발행사이자 국어 교과서 분야 선두를 달려온 미래엔이 교과서 전문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민간 기업 중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된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용(1·2학년)으로 남북의 서로 다른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우리말 길’을 비롯해 ‘우리말 터’, ‘우리말 꽃’, ‘우리말 틀’ 학생용 4종 교과



사용 학습안내서 1종 등 총 5책으로 구성됐다.

미래엔은 지난 2015년부터 통일국어교육연구회와 공동으로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양상 등 기초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초등 국어 교육 분야별 전문가와 미래엔 국어 교과서 개발 실무자 등 총 36명이 협력해 이번 교과서를 개발했다.

／한용수 기자